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학사일정

- 7월**
- 2(금) 2021학년도 1학기 원제본 논문 접수 마감
- 8월**
- 2(월)~25(수) 2021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휴·복학) 기간
 - 15(일) 광복절(공휴일)
 - 19(목)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식
 - 20(금)~25(수)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 20(금)~27(금)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 25(수)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예정)
 - 25(수) 2021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휴·복학) 기간 만료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김성일
- 주간 김홍찬
- 간사 문창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초점

학생들의 꿈을 향한 파란 사다리를 놓아주는 한국장학재단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교육신문 구독자 여러분들은 크나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를 갈고 닦는 데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값비싼 물건을 만드는 일보다 사람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孟母三遷之教(맹모삼천지교)'의 고사는 시간의 흐름이 무색하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교육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비전과 운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재단의 많은 사업은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특히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장래를 개척해나가는 데 있어 각자의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 가정 배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를 향한 사다리를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이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 취업이 불확실하고, 부동산 시세 앙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극심해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좌절해서는 안 되겠지요. 각자가 미래를 향한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에서 가정형편이라는 변수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여파로 금전적 측면 뿐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교육취약계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일상이 제약 받고 있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학교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확대 현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을 따라올 수 없고, 그래서 학생들의 평균적 학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정 사이에서 온라인 수업에 임하는 환경의 차이, 디지털 기기의 성능 차이 등으로 인해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 지식멘토링 등 다양한 유형의 멘토링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기회의 확대에 있어서 멘토링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우리 재단은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데 학자금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공부라는 것이 학자금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정신적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 재단은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리더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높으며, 대학생들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멘토링도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학생들도 큰 혜택을 입지만 동시에 가르치는 대학생들도 여러 가지 깨닫는 바가 많으므로 이것은 敎學相長(교학상장)의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재단에서는 멘토링 뿐 아니라 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술대회 등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점을 두고 계신 역점사업이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2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

다. 최근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는 정부의 복권기금 중 3,500억 원을 바탕으로 하여 꿈과 재능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복권기금 꿈나무 장학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등록금이 필요 없어서 지금까지는 장학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사실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중·고등학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 중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중학생에게는 월 25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5만원을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교재, 보습학원비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장차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재단은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 그리고 창업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기숙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칫 제도권 밖에 있어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듬어 안는 프로그램도 우리 재단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학으로서 나라의 동량을 길러내 온 빛나는 배움터이므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고려대 바로 앞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는데, 비록 고려대 학생은 아니었지만 멋진 석조건물인 고려대의 훌륭한 교정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었던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육과 배움이 큰 지장을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난리도 끝날 것이므로 학생들은 미래를 향한 자기 연마를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士別三日 刮目相對(사별삼일 괄목상대)'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는데,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 장수 여몽에 얽힌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선비는 사흘만 헤어졌다 다시 만나도 그 사이에 워낙 책을 많이 읽고 발전해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전에 보던 그 사람이 맞나 하고 놀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생 여러분은 이런 정신으로 철차타마(切磋琢磨)하여 스스로 실력을 늘리고, 장차 훌륭한 후진을 양성하여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지금, 당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갈 고려대학교가 원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국제전문가 양성



맞춤형 장학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인재 후원



초일류 석학들의 창의연구 (Creative Research) 지원



미래를 개척할 인프라 (교육연구시설, 첨단실험 시설 등) 구축

정기기부신청서

기부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법적 생년월일 기재						
구분	<input type="checkbox"/> 교우 입학연도 대학(원)	년	<input type="checkbox"/> 교우 학생성명 대학(원)	과	과(과정)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			
기부금액	<input type="checkbox"/> 1구좌	<input type="checkbox"/> 3구좌	<input type="checkbox"/> 5구좌			
	<input type="checkbox"/> 10구좌	<input type="checkbox"/> 30구좌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좌	※1구좌 매일 1만원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기부 권유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에 제공되며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부증서로 후에도 보관됩니다.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고객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이체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위 사항에 동의하며, 오프라인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작성하신 신청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 1666-3403(문자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코로나19 고려대학교 대응 지침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본교 교육대학원은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목) 교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갱신하였다. 교내 구성원이 숙지하여야 하는 행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된 국가에 체류하고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이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접촉하여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전파 지역에 체류한 유증상자와 접촉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국내 특정 유행 지역 또는 장소 체류자로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언급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등교를 중지하고 감염 의심 정황을 알리는 일련의 행동 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먼저, 국번 없이 1339번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여 안내받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이후, 학교 당국으로 연락하여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해야 한다. 내국인 학생은 02-3290-1571로, 외국인 학생은 02-3290-5119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동거인 중 자가 격리자가 있거나, 진단검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간 해제 및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를 중지하여야 한다.

무증상자이더라도 해외 입국 및 국

내 유행 지역 체류 사실이 있다면 등교가 제한된다. 국내 특정 유행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한 지 14일 이내의 학생과 교직원(학교 당국의 지침에 따라 등교 자제를 권고한다).

해외에서 입국했을 경우,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정부 지침에 따라 등교를 금지한다. 해당되는 교직원 및 학생은 마찬가지로 내국인은 02-3290-1571로, 외국인인은 02-3290-5119로 반드시 사전 연락할 의무가 있다. 관찰 기간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국번 없이 1339번으로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한편,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여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정상 등교가 가능하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제58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선출



백운룡
제58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지난 6월 7일(월) 제58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전자투표로 실시되었다.

선거에는 기호 1번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전공 백운룡 원우(부총학생회장 후보 상담심리교육전공 송수영 원우)와 기호 2번 체육교육전공 임성중 원우(부총학생회장 후보 컴퓨터교육전공 권민수 원우)가 출마하였다. 선거인 명부 등록 인원 489명 가운데 42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기권 1표를 제외하고 기호 1번이 251표, 기호 2번이 172

표를 득표하여 백운룡, 송수영 원우가 최종 당선되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58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향후 1년간 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원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게 된다.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백운룡 원우는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원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한 표 한 표를 '원우들의 자기실현을 돕는 실력 있는 총학생회'에 대한 실천 명령으로 여기고,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제58대 총학생회가 꾸러갈 1년에 대하여 "자기실현이라는 공통의 소명의식을 지닌 원우들이 선생님이라는 멋진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공약을 충실히 실천하여, 모든 원우가 우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1학년도 1학기 제3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지난 6월 4일(금) 운초우선교육관 306호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제3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가 시행되었다. 검사는 1회당 15분씩 총 7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교직 적성 및 인성에 관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확인까지는 약 한 달여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회당 응시자 수를 20명 내외로 제한하고, 검사 진행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각 검사 종료 후에는 약제를 사용하여 방역을 진행하였다.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제19조 3항 관련) '2.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에 따라

2013년 8월 졸업자부터는 필히 적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12학년까지는 1회, 13학년부터는 2회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응시 횟수는 학기별 1회로 제한된다.

7월 23일(금)에 1학기 마지막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해당하는 제5차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검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우 및 원우는 7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7월 9일(금) 오후 11시까지 사전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팀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1학년도 1학기 제10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지난 6월 25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도봉구청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학기 제10차 실습이 시행되었다.

이번 실습은 6월 1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고려대학교 학사 포털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사범대학 학부생 및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으로서 등록학기 기준의 고학년 중 응급처치 2회 미이수자를 우선 대상으로 총 1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실시되었다.

교육장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입실 시 발열 여부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실습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교육 절차는 출결 확인에 이어 2시부터 이론 교육을 1시간 진행한 후, 3시부터는 실습 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실습생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의의와 중요성, 절차와



방법, 자동 심장 충격기(AED) 사용법과 기도 폐쇄 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익혔다.

실습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을 근거로 한다.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학년도별로 1회, 졸업 전 총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021학년도 1학기 이후에 실시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학년도 제2차 교육봉사 세미나

지난 6월 24일(목) 오후 3시부터 25일(금) 오후 3시까지 2021학년도 제2차 교육봉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는 2021학년도 1학기에 교육봉사를 이수하고자 하는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 과정생,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31일(월)부터 6월 10일(목) 오후 11시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다.

본교는 매년 4회의 교육봉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봉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봉사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교육봉사를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육봉사 시작 전에 반드시 세미나에 우선 참석하여야 한다. 09학년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봉사(2학점, 60시간) 이수가 필수적이다. 세미나는 교육봉사 시작 전 1회만 참석하면 된다.

세미나를 신청한 학생은 고려대학교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인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를 통해 강의를 이수하였다. 신청자는 블랙보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좌측의 '2021학년도 2차 교육봉사 세미나' 탭

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의 '교육봉사 운영지침'을 숙지하여야 했다. 이어 '세미나 수강' 탭에서 세미나를 시청하고 '퀴즈' 탭을 클릭하여 퀴즈에 참여하였다. 퀴즈의 모든 문제를 맞추어 세미나가 이수 완료 처리되었으며 퀴즈를 제출한 즉시 성적을 확인하고 다시 응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수 확인' 탭에서 세미나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수 미완료 시에는 해당 페이지에 인증 표시가 없으며, 출석 반영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세미나를 이수한 학생은 학생증을 지참하고 본교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507호)을 방문해 교육봉사 일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일지를 분실하였을 경우 '교직팀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교육봉사 일지 및 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봉사 이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봉사 세미나에 참석한 다음 교육봉사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교육봉사계획서를 교직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후 봉사를 수행하며 일지를 작성하고 일지 및 확인서를 교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봉사 수행 후 다음 학기 교육봉사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원생은 기간 내에 확인서와 일지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2021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수강 예정자 교육봉사 일지 및 확인서 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강의를 신청할 학생은 지난 5월 31일(월)부터 오는 7월 30일(금)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수강신청기간 중 본 강의를 신청할 학생은 오는 8월 2일(월)부터 8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봉사 일지 및 확인서는 본교 교직팀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단,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므로 제출이 불가하다. 일지 및 확인서 제출 후 수강신청기간 또는 정정기간에 반드시 교육봉사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희망과목 등록기간에는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정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봉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교직팀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직팀에 전화(02-3290-2390) 문의할 수 있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지난 6월 11일(금) 오후 2시 본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들의 학번 조회는 8월 초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본교 수강신청 전용 URL(<http://sugang.korea.ac.kr/graduate/>)의 '신입생학번조회'에서 수험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오는 8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25일(수)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며 개강일은 오는 9월 1일(수)이다.

한편, 학생증은 금융과 비금융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금융기능담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8월 9일(월) 오전 9시부터 13일(금)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비금융 학생증의 경우 오는 8월 12일(목) 오전 9시부터 13일(금)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

기 기간에 학생증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교내 시설(도서관 및 각 건물 출입) 이용이 제한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학생증 배부는 오는 9월 2일(목) 오전 11시부터 교육대학원 행정실(운초우선교육관 405호)에서 이루어진다.

지원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신입생은 오는 9월 1일(수)부터 9일(목) 이내에 졸업증명서와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안내, 양식 및 학칙 등은 본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 게시되므로 졸업 시까지 수시로 접속 및 확인하여 이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교육과 이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어려움과 학교상담

이정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 연구원

※필자의 요청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놓인 아동일수록 신뢰로운 성인과 관계 맺을 토대로 한 심리·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초등학생 시기는 가정을 떠나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전환기로서 더욱 의미 있다. 과거에는 학생의 발달적 측면에서 이해가 탁월했던 담임교사를 통한 관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에 대한 예방적 중재의 관점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 분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탐색과 그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말로 우리 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이 같은 배경에서, 필자는 초등학교 상담 전문가 한혜원 선생님과 함께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어려움과 비대면 상담 장벽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처한 어려움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학급 단위의 생활 및 교과목 지도를 주로 다루는 담임교사에 비하여 상담교사가 개별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개입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을 기점으로 아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변화가 생겼음을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외부환경과의 단절 속에서 '도움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졌다. 온라인 개학 이전에는 담임교사가 전문상담교사에게 도움이 필

요한 학생을 의뢰해 왔지만,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적시 발견 및 도움 제공이 쉽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무너져버린 아이들'이 생겨났으며,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함에 따른 게임·인터넷 과몰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로 우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함께 지내는 시간만큼 깊어지는 부모님과 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전까지 담임 및 전문상담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녀 문제의 고민을 나누었던 학부모들이 이제는 그 부담을 오롯이 떠안게 되는 상황에 마주한 것이다.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둘째,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비대면 상담 장벽과 관련한 내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전문상담교사들은 SNS, 화상회의 플랫폼(Zoom), 핸드폰 영상통화 기능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을 시도하였다. 비대면 상담의 제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학생들의 상담태도 변화'이다.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이 상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으며, 상담교사의 질문에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상담교사들은 비밀이 보장되던 상담실과는 달리,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개방성이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에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상담에 제약을 준 것이다. '함께 얼굴을 맞대지 못하여 놓치는 의미'들도 생겼다. 특히 침묵이나 시선 맞춤 등의 비언어적 신호들은 말 못 하는 정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비대면 상담 장면에서 이 같은 신호를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초등학생에게 더 유용한 대화법이었던 음악, 미술, 놀이 등의 매체 사용에 제한을 받으면서 '강력한 소통의 도구를 잃어버리는' 일도 생겼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교육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학습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만 인식되었던 학교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반추하게 된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발견하기도, 적시에 도움을 주기도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상담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문상담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함축된다. 첫째, 정상적인 등교 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아동학대 등의 위기 문제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하여 조기에 발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한 담임교사 및 학교 관리자 등은 평상시에도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잠재적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교내·외 사회복지사와의 협력과 소통을 토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개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더 나은 비대면 상담환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전문상담교사와 학생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반강제적으로 비대면 상담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에도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여 상담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상담 장면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상담 구조화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속마음을 마음껏 털어놓기 어려워진 아이들의 마음도 비대면 상담의 한계로 드러났다. 이에,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비대면 상담에도 비밀보장의 원칙이 성립됨을 안내하고, 상담 과정에서 다른 가족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만한 시간과 공간 마련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어려움과 비대면 상담 장벽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각종 신문 기사들이 유독 학습, 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실은 학습 이외의 측면에 더 많이 주력하고 있는 학교상담이란 분야가 교육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어느 원로 교육자의 이야기처럼, '교육의 대상도, 목표도 사람'이 되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기점으로 학교의 기능과 교육의 영역은 재정립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학습에만 집중되었던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더하여, 학교가 학생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재조명되고 있다. 어쩌면 이 위기는 학습 결손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과 정서를 돌볼 수 있는, 무엇보다 관계를 우선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학생', '학생의 마음'을 우선으로 돌보는 학교상담을 필두로 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를 지치게 한 어려움의 시기가 인지적 배움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직면하게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한 발자 뛰어선 미래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원격수업은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급격히 이루어졌다. 비대면 만남을 근간으로 한 교육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둔 현시점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2일(수)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별 성취수준(4, 3, 2, 1 단계)의 경우, 중학교 국어영역, 고등학교 국어 영역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아울러,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수준(기초학력 미만)의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의 경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년과 대비하였을 때는 중학교는 4.9%p, 고등학교는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또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2020년에는 원격수업 환경과 관련된 학생 설문은 추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학교 선생님이나 직접 제작한 수업 영상'이 원격수업 유형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는 유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축소로 인하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학교생활 행복도 및 정의적 특성의 하락 등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학습 및 정서 결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가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도 △정서·사회적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활동 △취업·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 및 학생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책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교육회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중3과2 학생의 3%를 표집하여 지정일에 자율 평가로 실시하던 기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것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교육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교육부는 지난 6월 20일(일) 오는 2021학년도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단계적 이행방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 결손 및 사회적 저하 등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육부는 방역 중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사전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등교 확대 이행방안은 '1학기 우선 확대-전면등교 준비-2학기 전면등교 실시'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절차인 '1학기 우선 확대'는 본격적인 등교에 앞서 지난 6월 14일(월)부터 기준 거리 두기 2단계의 상향 조정을 통해 등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 지역 중학교 등교 확대 유도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6월 14일(월) 기준 수도권 중학교는 67.5%, 직업계고의 약 80%인 463개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전면등교 준비'로는 여름방학 중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한다.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7, 8월에 걸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고3 학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는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방역 일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 감염사례 분석을 토대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별 방역 수칙 강조·심리·방역 지원 사항을 담은 교육영상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있었던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을 개학 전후 3주에 걸쳐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역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세 번째 단계인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12단계(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급의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3 수준의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밀집도 원칙 간 연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단계 조정 시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학교 현장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예측가능성 증대를 도모한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기 초 철저한 방역조치 운영을 거쳐, 약 3,600만 명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예정인 10월부터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확정 및 교재 개발 본격 추진

교육부가 각국의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확정하고 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교육이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커짐에 따라 각국의 교육 체제에서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교육·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연구·검토진으로 참여하였다. 온라인 공청회, 검토자 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되었으며, 향후 교육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지 공관 및 한국교육원을 통해 교육기관에 보급·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해 주요 한국어 채택국에서 외국어 교육 기본 틀로 활용되는 유럽공동참조기준(CEFR)을 준용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선진적인 외국어 교수법을 적용하고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 개발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특히, 유럽공동참조기준의 6등급 체계(A1, A2, B1, B2, C1, C2)에 세부 등급(Pre-A1, A2+, B1+, B2+)을 추가하여 10개 등급(초급 4단계, 중급 4단계, 고급 2단계)으로 구분하였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취지를 살리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제한국어교육재단과 함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0여 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개발진과 검토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초·중등 학습자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본 범용교재 개발 과정에서는 초·중등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만들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재에 QR코드를 넣어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등 교수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문화와 역사 요소를 심화·보충하는 '문화 교재',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한류콘텐츠 활용 교재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탄소년단(BTS) 콘텐츠를 접목하여 개발 중이다.

한편,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을 가진 신남방 4개국(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현지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현지 언어와 문화, 교육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교육과 학문

교육사상의 텍스트,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맥락과 문제설정의 읽기 -



곽태진

고려대학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교육에 관한 논의를 담은 텍스트는, 그것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교육사상연구자는 물론이고 교육실천에 유의미한 바를 얻기 위한 (예비)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인류의 지적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생산된 수많은 교육적 텍스트들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텍스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물론, 텍스트를 읽는 유일한 '절대적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절한 읽기 방법에 대한 고민과 그것의 적용을 통해, 텍스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기: 맥락의 고려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일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다. 이런 이유

에서 정치사상사학자 쾨팅 스키너는, 텍스트의 저자가 '의도한 바'를 밝히는 것이 해석의 관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작업이 생각만큼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문제가 되는 텍스트 자체의 표면적 의미나 주제를 밝혀내는 것 이상의 일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텍스트 읽기를 위하여 스키너가 주목한 것은 텍스트가 집필되던 당시의 맥락, 특히 담론적 맥락이다. 스키너는 특정한 저자가 어떤 텍스트를 쓸 때 사용할 수 있었던 당대의 개념적 재료들, 그리고 그 텍스트를 다른 형태가 아닌 그와 같이 남겨야 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며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스키너의 입장에 의하면 텍스트 읽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독자는 우선 텍스트 자체의 의미 해석을 통해 그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특정한 문제를 주제로 하는 그 텍스트를 당대의 담론적 맥락 속에서 고려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독자는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텍스트를 남겼는지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맥락을 고려하여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읽기 방법은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초시간적·자의적 독해를 하기 쉬운 교육적 텍스트 읽기에서 특히나 유의할 만한 지침이다.

↓ 텍스트의 정체성: 문제설정의 읽기

스키너의 텍스트 읽기 방법에는 한 가지 중대한 난점이 존재한다. 모든 텍스트 읽기와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해석자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루이 알튀세르가 지적하듯이, 해석하게도 '순수한 읽기'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더욱이, 텍스트에는 저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고 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논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텍스트 해석은 단지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것에 한정될 수 없다. 교육사상 텍스트를 읽는 방법의 경우 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육적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교육을 다루는 저작에만 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자의 의도를 초과하거나 일탈하는 부분도 다룰 수 있는 텍스트 읽기 방법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알튀세르가 제시한 '문제설정'이라는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가 자크 마르탱에게서 빌려왔다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이론체계가 다른 이론체계와 구분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 지점은 특정한 이론체계가 주된 문제로 설정하는 것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따라서 그것을 '문제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국 문제설정은 특정한 이론체계 혹은 텍스트의 정체성을, 다른 이론체계 혹은 텍스트의 정체성과 구분 짓는 종차(種差)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설정을 중심에 두는 읽기를 통해 특정 이론체계와 텍스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다.

이러한 읽기 방법에 따르면 우리는 텍스트가 설정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텍스트의 문제설정을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읽기는 저자의 의도를 초과 또는 일탈하는 부분에도 주목해야 함을 함의하지만, '제멋대로의 읽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알튀세르의 논의에 따르면, 텍스트에는 사회적 구조가 이데올로기적 장(場)을 거쳐 반영된다. 따라서 문제설정은 사회적·담론적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키너의 읽기 방법과 알튀세르의 읽기 방법이 그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종합될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 교육사상 텍스트, 맥락과 문제설정의 읽기

텍스트 읽기 방법에 대한 스키너와 알튀세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는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적·담론적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문제설정을 중심에 두는 읽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읽기 방법은 텍스트가 생산된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키너의 지침을 소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문제설정을 중심에 두는 읽기를 중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알튀세르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결국, '맥락의 읽기'와 '문제설정의 읽기'의 수렴 지점에서 텍스트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저자가 명백하게 교육을 논하고자 집필한 텍스트만을 교육사상의 텍스트라고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 어떤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설정이 교육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교육사상의 텍스트라고 간주하여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양한 교육적 텍스트를, 그 문제설정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날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여전히 텍스트 생산의 사회

적·담론적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교육적 텍스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텍스트에 대한 평가적 판단과 해석의 기준을 전적으로 현재에 두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나 오늘날의 '교육적 시사점' 혹은 '교육적 교훈'을 찾아내는 데에 관심을 두는 (예비)교사들과 교육사상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사상의 텍스트를 읽는 것, 특히나 '고전'에 가까운 텍스트를 읽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런 일은 교육실천과 괴리된 것으로서, 기껏해야 교육사상 연구자들의 기교하고 무익한 활동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사상의 텍스트들을 경유하여 교육이라는 인간의 본원적 실천들 가운데 하나를 사유하는 것은, 교육사상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실천에 종사하는 (예비)교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앎과 사유가 실천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앎과 사유가 보다 나은 실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무모한 기대는 아닐 것이다. 앎과 사유가 실천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합리적 실천'에 있어 앎과 사유는 필요조건이기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사상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사유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교육실천에 기여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읽기'로 시작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맥락과 문제설정의 읽기 방법'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신문 문화평

과학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 몸이 세계라면(2018)
김승섭 저, 동아사이

『우리 몸이 세계라면』은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의 두 번째 저서이다. 저자는 (이미 이 지면에서 소개한 바 있는) 전작인 『아름이 길이 되려면』에서 자신의 전공인 사회역학을 소개하고, 비교적 현재와 가까운 사례들을 들어 그 역할을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이번엔 다룬 저서에서는 공중보건, 그리고 이를 다루는 과학의 역사(略史)를 일별한다. 물론 간략히 기술하더라도 그 역사를 이 책의 분량으로 담아내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다. 저자는 그보다, '지식이 생산되는 조건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 자신을 포함해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저자가 밝힌 집필의 목적이다.

저자 스스로 제출하는 답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비판적 사고'이고, 둘째는 '윤리성'이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대타향으로 두는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연구자가 자기 경험만을 근거 삼아 내린 결론이 상식의 권위를 가질 때 끔찍한 사고가 초래될 수 있고, 한편으로 잘못된 상식은 연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조차 오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당대의 의학의 상식이었던 갈레노스와 대결한 베살리우스와 제멜바이스는 이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주치의였던 갈레노스의 저술은 서양에서 중세와 그 이후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것이었는데, 베살리우스와 제멜바이스는 각각 해부학과 수술 위생 분야에서 갈레노스의 이론에 도전한다.

베살리우스는 (당대의 금기인) 실제 인간의 시신을 해부함으로써, 갈레노스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을 해부한 결과에 미루어 추측한 해부도의 오류를 밝힌다. 한편 제멜바이스는 출산 후 산욕열로 인한 사망이 산모의 감정적 문제나 '마이즈마(갈레노스의 개념인 '나쁜 공

기')가 아닌 의사들의 위생(특히 손 씻기)에 그 원인이 있음을 최초로 지적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지금은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주장이 당대에는 거센 반발을 마주했다는 사실이다. 베살리우스의 스승인 실비우스는 어쩔 수 없이 제자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갈레노스가 틀린 게 아니라 고대로마 이후 인간의 신체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제멜바이스가 근무하던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인 클라인 교수는 여전히 새로 설치한 환기시설이 사망률을 낮춘 것이라 주장했고, 이후 제멜바이스는 재계약에 실패하고 낙향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다 47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한편 두 번째 원칙, 즉 연구자가 늘 자신의 탐구가 윤리적인지 자문해야 하는 이유는 '객관성'에 대한 집착, 혹은 자명한 믿음이 폭력으로 전화되거나 지배적 권력을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 쉽기 때문이다. 매독 연구를 위해 흑인들을 대상으로 치료라 속인 실험을 40년간 진행한 터스키기 매독 실험, 일제 강점기 대동아 공영권과 일본의 리더십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종계수 측정 연구 등이 그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들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술한 사건들의 주축인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가 왜 비윤리적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터스키기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존 헬러 박사는 자신들의 실험이 "비교집단을 가지고 있는 명

확한 연구"이고, 향후 매독 치료에 크게 기여할 실험이라는 점에서 "오전히 윤리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혈액형의 분포 비율을 근거로 인종계수를 측정한 경성의전의 백인제역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그에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1운동 참여 이력으로 10개월간 투옥되었다) '과학적으로' 진화 단계상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못하다고 진술했다. 객관성은 과학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은 연구 동기에서 결과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중립적일 수 없다는 자각,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얻을 수 있는 가치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던진 질문은 교육학에서도 곱씹어 볼 만한 것이다. 교육학에서는 유난히, 소위 이론가와 실천가의 구별이 모호해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에 자신의 경험을 상식과 객관적 이론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객관성의 신화에 잠식되어 자기 연구의 효과를 자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극단적인 두 경향 사이에서, 어떤 연구들은 저자의 말처럼 "분투하고 곱씹으며 전복되는" 지식의 사회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 몸이 세계라면』은 그러한 사회가 어디로 정향되어 있는지, 혹은 향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라면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스승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발전에 힘쓰고 계신 황정현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황정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장애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이끌어 내고 계신 황정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황정현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2년 충청남도 교육청 특수교사 공개채용 1기로 교직에 입문하여 올해로 28년 차 재직 중인 특수교사 황정현입니다. 2014년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세종시의 첫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에 재직하는 바 있으며, 현재는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 생활을 해 왔다면, 현재는 종종 장애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의 가정으로 찾아가 교육하는 재택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정보 통신망이 발달되지 않아,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생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먼 단위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겨우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펼쳐진 전지 크기의 입시 안내 자료를 보고 선생님이 정해준 대학과 학과로 진학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뇌성마비 자녀를 둔 생물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 특수교육과로 원서를 쓰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특수교육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한 4년간의 대학생활.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이 버팀목이 되어 현재까지 특수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특수교육에 종사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애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위 시간 수업입니다. 장애 학생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이 사회 속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수업에서 일어나는 배움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교사의 시범과 반복적인 연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학생이 그 배움을 체득하여 이를 일상생활에 전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상시 고민하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수업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수업 연구대회에 다수 참가하였고, 매 학년도 수업 관련 연구회를 조직하여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는 한편, 동료 교사들과 수업 방법에 관하여 활발히 소통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시범 수업을 하기도 하며 자율 장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수업 공개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귀감이 되었는지 수업 관련 연수 및 강의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재구성한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나요?

특수교육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되어 학교 현장에 배포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교육과정은 특수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식 교육(개별화교육)'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특성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과 학급,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사 주도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소 수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배움을 일



으켜 삶과 연계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생각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결론은 바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만으로는 저의 이러한 생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닌 동료 교사들과 모여 소통하다 보니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제행동 해결, 학부모 민원 대응 등 학급 운영의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화'라고 하면 꼭 떠오르는 자매가 있습니다. 삶을 비판하며 날마다 술에 젖어 지내시던 아버지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등교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밥은 먹었니? 머리는 감았니? 옷을 갈아입고 왔어지?" 등의 말을 한동안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저는 가정방문을 꼭 가고는 하였습니다. 가정방문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자매의 집에도 역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부터 방구석까지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던 환경, 추위에 벌겍게 달아오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큰 포기의 김치를 썰어 어머니의 식사를 차려드리던 쌍둥이 자매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들에게 아침마다 물었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등교하면 음식을 먹게 하고 머리를 감겼으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자매에게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보다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전화로 종종 반가움을 전합니다.

선생님의 교육관은 무엇이며, 이러한 교육관이 학생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毛竹)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어도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죽순이 돋아나 눈에 띄게 쭉쭉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크게 성장해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마치 모죽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장애 학생이 교육이라는 양분을 통해 자신의 생명력을 모죽처럼 강하게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성장을 위한 몸부림을 교사로서 모른 채 하지 않고, 더 풍부한 영양분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분들은 대부분 교사를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나는 교사가 되고 싶은가'를 묻고 또 물으며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은 철밥통'이라는 상투적인 말에 의지하여 교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더 좋은 철밥통을 찾아보심이 좋을 듯하며,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는 공익을 위해 살아가는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참 교사를 꿈꾸시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만납시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교육과 세계

교육 평등화를 위한 캐나다의 당면 과제



김미정

알버타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캐나다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중요시한다. 교육 체제 안에서도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캐나다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이민 희망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며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캐나다 내 유학생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 교육 정책이나 환경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는 특정한 요소들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학생 1인당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교사의 근무 환경과 조건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드높인다.

주(州)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교육 정책 분산형 구조는 각 주가 당면한 과제를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업 성취도, 기회 평등, 그리고 교육 효율성을 함께 비교 분석한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가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그 중 캐나다는 가정 경제 수준과 배경의 영향 없이 모든 학생들이 낮은 비용을 소비하면서 평등화된 교육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을 추구한 교육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자들은 캐나다 교육의 평등화를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정책과 함께 설명하기도 한다. 점차적이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이민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인구의

약 22%가 이민자이고 15세 이하 학생들의 37.5%가 이민자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민자를 위한 교육 정책의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 간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수학 학습 성취도를 이민자 학생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캐나다는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수학 학습 성취도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매우 높고, 이민자와 이민자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캐나다 내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현지 학교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 능력을 성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가 결과에 반해, 캐나다는 내부적으로 원주민 교육 정책에 관련하여서는 유구하고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원주민 기숙학교와 관련한 보도로 인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2021년 5월 28일자 캐나다 국내 뉴스에서는, 지금은 폐교되었으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캠푸스 지역에 위치한 한 원주민 기숙학교 주변에서 215명의 어린이 유골이 묻혀 있는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캐나다 전역에 걸쳐 이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고 있으며 원주민을 위한 인권과 평등, 교육 정책 방향 등에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럽인들은 캐나다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First Nations people 또는 Indigenous people)들의 생활 터전과 인권, 기회의 평등을 박탈한 역사적 과오가 있다. 이주민들을 중심으

로 설립된 캐나다 정부는 1870년부터 1990년까지 인디언 기숙학교(The last Indian residential school) 정책을 수립하고 원주민 학생들을 그들의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강제로 데려다가 강압적인 훈육을 실시하였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150,0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던 139개 기숙학교의 대부분은 1970년대 중반에 문을 닫았지만, 마지막 기숙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이다. 이번에 집단 무덤이 발견된 캠푸스 지역의 원주민 기숙학교가 포함된다. 한 매체에서는 4천 명이 넘는 원주민 학생들이 사망하였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죽은도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강압에 의해 부모와 가족들의 품을 떠난 학생들은 기숙학교에서 자신이 가져온 사고방식, 가치, 문화 등을 억압당하며 유럽인들의 생활양식을 따르고, 자신의 언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기를 강요받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원주민 기숙학교 체제는 무너졌으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를 떠나 있었던 학생들은 기숙학교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너무 어린 나이에 분리되어 고향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학생의 인적 기록이 보관되지 않아 보호자나 본적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생존자들은 정신적인 장애를 겪으며 자신의 삶을 비판하거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얼마 전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 교육 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 및 개선하는 법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알버타 교육부에서는 교사의 필수 역량 중 하나로 전 교

과에 원주민 관련 배경지식을 포함하였다. 이는 원주민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원주민 학생들이 원주민 관련 역사와 문화, 언어적 배경을 심도 있게 이해하며 이 역사적 사실이 오늘의 캐나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룸을 함께 인식하고자 함이다. 캐나다는 원주민 정책에 관한 부끄러운 과거를 의미 있는 교육 혁신과 정책 수립 등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캐나다는 향후에도 교육에 있어 인권 및 평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시스템과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뛰어난 국제 평가 결과를 얻지만, 여전히 다른 인종, 성별, 언어, 문화, 역사,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원주민 학생들이 희생되었고, 오늘날에는 유색 인종과 또 성소수자들이 그러하다. 캐나다는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용하는 교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교육계에서는 'Equality'와 'Equity'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다.

Equality는 개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와 대우를 받는 것이라 한다면, Equity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그들의 배경으로 인해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이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Equity이며 이것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말한다. 인권과 평등에 대한 교육자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노력은 앞으로도 캐나다 교육에 이끄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교육현장노트

지속가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홍지예

상담심리교육전공/송실고등학교

지 딱히 화가 나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 학생의 말이 마음에 그렇게 잔인하게 상처를 남겼을지 모르겠다. 그 학생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교사니까 참고 넘어가라는 말을 들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나는 내가 관찰을 줄 알았다.

그다음 해 1학년 입학생 중 여교사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다. 나는 언젠가 혼내주어야지 버리고 있었다. 그 학생은 사건이 있던 날따라 칠판에 성적인 단어를 써놓고 꺼림직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있었다. 불쾌한 기분이 든 나는 "그렇게 글로 쓰면 성적 욕구가 해소되나?"라고 물으며 그 아이의 심기를 건드렸다. 나의 한방은 먹혀들었고, 그 학생과 수업 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을 하였다. 수업 시간 내도록 내 언행으로 감정이 상했던 학생은 결국 나의 특정 발언에 발끈하여 책상을 발로 차고 책을 집어 던졌다. 이 사건은 도리어 내가 사용한 단어가 발목을 잡아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도대체 이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고, 나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상담심리교육전공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원에 입학하고 3학기째 되던 해, 학급에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한 학생이 배정되었다. 그 학생은 늦은 시간 죽음에 대한 고민을 메시지로 보내왔으며 다른 학생들 이상으로 관심과 따뜻함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어느 날 수업 시간, 학생이 벌레를 잡아 내 얼굴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생이 벌레를 던지고 난 후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충동적이었음이 느껴졌지만, 아픈 아이라는 마음이 이 사건은 내가 덮고 넘어갔다. 내가 이해하고 참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관찰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교실에 들어가면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불안감을 느꼈다. 학생들이 나에게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는 것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다.

관찰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과거의 경험들은 억눌린 감정으로 마음에 고스란히 남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도 줄어들었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까칠한 고슴도치처럼 날을 세우는 교사가 되어 있었다. 대학원에 입학하여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건 나 자신이었다. '나는 교사니까, 나는 어른이니까'로 해결되지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었다.

한 해 정도가 더 지나는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깨달았다. 내가 직접적으로 이 감정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이 건

강해야 행복한 교사로 남아 아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되고자 했던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들과 아픔을 억누르려 할 필요도, 무조건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모순을 느낀다. 또, 학생들이랑 실랑이하면 교사만 우스워진다는 생각도 마음 한쪽에 남아 있다. 분명 예전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분노와 좌절감, 슬픔을 느낄 것이고 목구멍까지 욕설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도 하나는 안다.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니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교사도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그리고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야 아이들을 품을 힘이 생긴다. 앞으로 남은 30여 년의 시간 동안 나는 더 많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겪고 싶지 않은 경험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를 돌보며 아프다고 말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야 내가 아이들을 품을 힘도 생길 것이라 믿는다.

"너 같은 녀은 교사 자질이 없어" 2018년 가을, 현충원 야외활동에서 한 학생에게 들은 말이다. 불같이 화를 내는 교사였던 나는 그날만큼은 반응이 달랐다.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했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였는

학교현장 탐방

‘메이커교육중점과정’으로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효자고등학교



김영진
효자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효자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효자고등학교 융합과학부 교사 김영진입니다. 현재 메이커 교과특성화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 과목과 전기전자기 초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06년 개교 이래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정부 효자고등학교는 신뢰의 학교관, 열정의 교사관, 미래의 학생관, 협력의 학부모관이라는 기대상을 바탕으로 ‘도덕인’, ‘창의인’, ‘건강인’, ‘전문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을 믿고 섬기는 미래지향적 경영, 민주적 경영, 창의적 경영이라는 학교장의 교육관 아래, ‘열정적인 교사와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화목한 학교’를 교육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교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배움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커교육 교과특성화학교, 리버럴아츠(교양교육) 교과특성화학교, 문화예술교육(오케스트라학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교육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8학년도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

영을 위해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학, 기술,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융·복합 교육과 통합교과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유형(有形)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구성은 그 어느 교육 활동보다 높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메이커교육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문적인 과목을 공부하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 교과군에서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전기전자기초’, ‘컴퓨터 그래픽’ 등의 교과를 개설하여 프로젝트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융합반, 메이커반, 물리 과제 탐구반, 바이오반, 실험반 등의 특색 있는 실험실습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과집중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뿐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로봇 코딩 교실,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각종 탐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공유·나눔의 과정 중심 교육활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이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사들의 전문성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실습, 레이저 절삭기와 3D 프린터 등의 기자재 사용 연수, 포토샵과 온라인 수업 방법 연수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를 제한하지 않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말미암아 과학, 기술, 정보 교사는 물론, 타 교과 교사들의 메이커교육중점과정에 대한 이해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과융합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공계 분야로의 진로·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희망 분야와 관련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커 교과특성화 교육이 실시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보다 전문적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이커교육중점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의 경우 모두 학생 참여·주도형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론·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주관하는 프로젝트식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탐구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시 되는 수업을 통해 실패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심화된 탐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이커교육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메이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디지털 기기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본교 창의융합실과 메이커실에 레이저 조각기, 3D 프린터, 아크릴 절곡기, 팀별 학습을 위한 데스크탑과 노트북, 목공 작업을 위한 테이블쏘, 각도절단기, 샌더기, 트리머, 연삭기 등 각종 장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학급을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자재를 확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강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주 등교로 인해, 2020년에 실시한 특강 프로그램과 올해 활동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 또는 개인별로 프로젝트 과제를 부여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메이커교육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본교는 3년째 메이커교육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중점교과는 평균 학생수를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동아리와 탐구활동 신청도 기준 인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진학과 진로에 도움이 되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공계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본교는 메이커교육중점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교과 내 다양한 활동 및 비교과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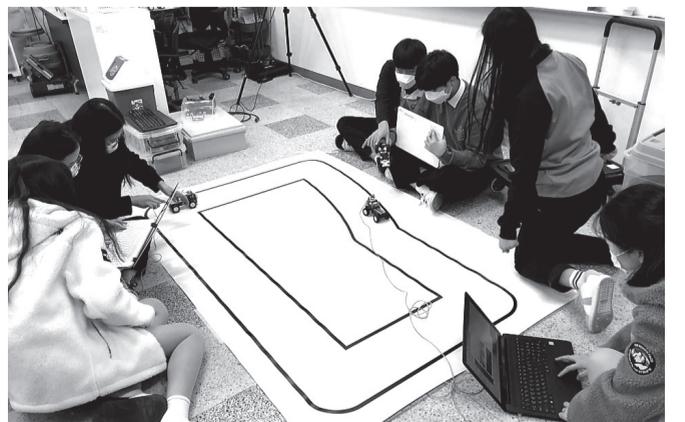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학생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 학습 욕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교과목과 교육학 등 다양한 지식을 이미 쌓게 되지만, 교사가 되고 난 후에도 시대의 흐름, 학습 환경의 다변화 등을 읽어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잘 가르치려면, 래포(rapport)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수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학생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일을 하지 못하면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과 머리 모두 유연성을 가지고 교육에 임한다면 멋진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이론·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주관하는 프로젝트식 수업을 운영하다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탐구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시 되는 수업을 통해 실패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심화된 탐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 탐방

새로운 공간으로의 도약, <문화 공간 서울>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서울의 여러 문화 공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 또는 아직은 낯선 서울 속 색다른 문화 공간들을 살피으로써 대한민국 중심지 서울의 다채로움을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서울로 7017', '테마가 있는 지하철역', '경의선 책거리', '서울 문화비축기지', '서울식물원'을 통해 서울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편, 서울만의 매력을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서울의 문화 공간을 찾아 함께 떠나 볼까요?

<서울로 7017>

- 전시장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32
- 관람시간: 매일 0시~24시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313-7017

<지하철 3호선 안국역>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울곡로 62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6110-3281

<지하철 1호선 종각역>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55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6110-1311

<경의선 책거리>

- 전시장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7길 35
- 관람시간: 화~일 오전 11시~오후 8시 (매주 월요일 휴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324-6200

<서울 문화비축기지>

- 전시장소: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 관람시간: T0 연중무휴
T1~T6 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376-8410

<서울식물원>

- 전시장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 관람시간: 온실, 주제정원
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 관람요금: 대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소인 2,000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무료)
- 관람문의: 02-2104-9716

대한민국 수도 서울,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기반 시설은 물론 문화 공간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만큼 가볼 만한 곳, 구경할 거리도 많은 곳이 바로 서울이다. 그래서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 보려고 한다. 특히, 과거의 공간을 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공간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또 변모한 그 공간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은 '차량 길'에서 '사람 길'로 재탄생한 서울역 고가도로를 가리킨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본래 차량을 위한 도로였으나, 안전상의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철거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노후 건축에 대한 일반적 관점인 '철거'로부터 벗어나, 차량 길을 사람 길로 재조성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서울로 7017'이라는 명칭에서 '70'은 차량 길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준공 시점을, '17'은 사람 길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완성 시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서울로 7017이라는 명칭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건축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서울로 7017에는 전시관, 홍보관 등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 마치 공중(空中) 식물원에 온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 주의 식물'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매주 게시하고 있다고 하니, 천천히 거닐며 이 주의 식물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서울로를 즐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아울러, 서울역 방향으로 걷다보면 옥상정원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이곳에도 방문하여 서울역 주변 풍경을 한눈에 담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 테마가 있는 지하철역

지하철 역사(驛舍)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지하 공간은 더 이상 지하철 탑승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존재하던 공간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도약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독립운동 테마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안국역 일대는 개화운동이 시작된 곳이자 독립운동의 핵심 거점이었다. 이를 기리고자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 안국역은 독립운동 테마역사로 재탄생하였다. 독립운동을 테마로 하는 만큼 그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여러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마치 작은 박물관을 연상하게 만든다. 특히, '100년 기동'이라는 조형물이 특징적이다. 격동의 100년을 일구어낸 역사적 인물들의 얼굴로 쌓아 올린 이 기동은 100초에 한 번씩 새로 작동한다. 8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팔도 곧 삼천리 방방곡곡을 상징한다.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을 모아 푸른 벽면에 새긴 '100년 계단'도 매우 인상적이다. 이 청색 계단은 기념공간과 일상공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엮어 내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는 '태양의 정원'이 있다. 고밀도의 햇빛을 지하까지 도달하게 하는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한 결과,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에 정원이 조성될 수 있었다. 유자나무, 금귤나무 등의 과실수를 포함하여 총 37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각자의 푸른빛을 뽐내는 식물들 덕에 삭막했던 지하공간이 녹색 습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람이 '스쳐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머무르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 경의선 책거리

경의선 책거리는 경의선 폐선 부지 위에 조성된 책 테마 거리이다. 기차 대신 사람과 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난 이곳은 '312일 저자를 만나는 곳'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책을 매개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삶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다.

책거리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각 공간은 'OO산책'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10개의 '산책'은 하나의 작은 서점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여행산책'은 여행, 취미, 휴식을 주제로 한 서적이나 물품 등을 판매 전시하는 공간이다. 책거리를 여유롭게 산책하며 각자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공간에 방문하면 된다.



책거리라고 하여 서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조형물이 책거리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그 중 '텍스트의 숲'은 마포구 추천도서 100선에 해당하는 각 도서의 본문으로부터 문장을 추출하여, 그것을 숲 모양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파리 사이로 태양빛이 스며드는 숲의 모습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라고 전해진다. 텍스트들이 나뭇잎처럼 표현되어 있어, 글자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와우교 밑에는 '책거리역'이 조성되어 있다. 옛 간이역을 재현해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책거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진 명소로 꼽힌다.



| 서울 문화비축기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서울 문화비축기지는 본래 마포 석유비축기지였다. 석유파동 이후 건설된 5개의 석유 탱크에는 서울시민이 약 한 달간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석유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된 바 있다.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었으나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문화비축기지로 거듭났다. 이곳은 본래 1급 보안 시설로 분류되어 41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문화뱅크'로의 탈바꿈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 할 수 있는 생태문화공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서울 문화비축기지는 T0~T6까지 크게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장인 T0(문화마당)와 T6(커뮤니티센터)를 제외한 T1~T5는 기존 5개의 석유 탱크를 활용한 공간이다. T1(파빌리온)에서는 매봉산의 암반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데,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분위기가 매번 달라 방문할 때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T2(공연장)의 상부는 야외무대로, 하부는 실내 공연장으로 재탄생하였다. 탱크 원형을 온전히 보존한 T3(탱크원형)는 석유비축기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으며, 탱크 내부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T4(복합문화공간)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탱크의 거대함을 느끼게 만든다. T5(이야기관)에는 석유비축기지가 문화비축기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은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이다. 식물과 식물문화, 생물종 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래 농경지였던 곳을 개발하여 만들었다. 오랫동안 농사가 이루어져 오던 땅에 상업시설이 아닌 식물원을 조성함으로써 농사의 역사와 땅의 기억을 계승했다. 서울 시민의 밥상을 책임지던 땅이 도심 속 녹색명소로, 한국을 대표하는 식물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서울식물원의 영문 명칭은 'Seoul Botanic Park'이다. 우리는 이 명칭으로부터 서울식물원이 '식물원(Botanic Garden)'과 '공원(Urban Park)'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 공간으로 분류된다. '주제정원'과 '온실'은 식물원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은 공원 공간에 해당된다.

여덟 개의 주제로 다채로운 정원을 재현해 낸 주제정원과 열대·지중해 12개 도시의 다양한 식물을 전시해 놓은 온실은 서울식물원의 핵심공간이다. 특히, 서울식물원의 온실은 가운데가 불룩하게 솟은 돔 형태가 아닌, 오목한 점시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온실은 열대관과 지중해관으로 나뉘는데, 열대관에는 5m 높이의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있어 식물을 보다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온실 건물에는 씨앗을 책처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씨앗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어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 속 다양한 문화 공간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문화 공간들. 골칫거리가 될 뻔했던 곳, 별다른 의미 없이 존재만 하던 곳, 방치된 채 의미를 잃어 가던 곳이 문화 향유와 탄생의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과거에 멈추어 있지 않고 발전하는 길을 택한 이러한 공간들을 바라보며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된다.